

02 : 도서공간의 재구축 사례

The Example of Library Space Construction



윤 남 희 / (주)VMA건축사사무소 소장
Yun, Nam-Hee / Director, VMA Architecture Office
otherdesign@paran.com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설계



이 소 진 / 아틀리에리옹 대표
Lee, So-Jin / Director, Atelierslion
sojinlee@atelierslion.com
서울 대청중학교 설계

학교 도서관은 단지 자료를 축적해 놓은 자료실로서의 역할만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학습활동, 독서활동, 자료 및 정보제공,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학교의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공간으로 자아학습의 장이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생중심의 학습을 위한 독서활동과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지 장서수와 컴퓨터 등의 물리적인 수치가 더 이상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인격소양에 도움이 되는 독서공간을 통한 청소년기의 마음의 안정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아학습의 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문화관광부의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 가운데 선정된 도서공간의 재구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

1.1 서론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서울 경복여자고등학교는 1993년 학교법인 경복학원에 의해 설립이 된 학교로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지고·지미·지선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1,116명, 학급 수는 27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1996년에 도서관, 전산실, 어학실이 준공되어 운용되어 왔으나 14년의 시간이 흘러 시설의 노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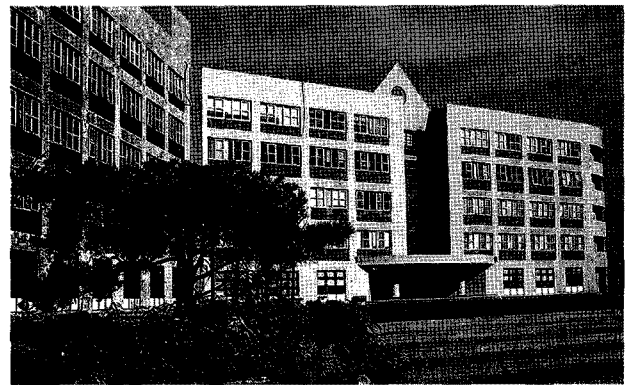


그림 1. 학교 전체 전경

표 1. 학교개요 및 공사개요

설립연도	1993년
학생수	1,116명
학급수	27학급
공사내용	1층 도서공간 리모델링
공사면적	278.89㎡
공사기간	2010.04-2010.10

와 함께 학생들의 자유로운 독서활동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여 사용빈도도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었다.

대상학교는 가운데 홀을 중심으로 3개의 날개가 펼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1층 홀의 좌측에는 교장실, 행정실 등의 행정공간으로 되어 있고 홀의 우측에 도서관이 위치하여 있다. 중앙 홀은 각 층으로 향하는 계단 코어와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언제든지 접근하기 쉬운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계단 코어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학생들의 공부방인 독서실이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 공간의 기능적 연계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공사 전에 도서관을 방문하였을 때의 느낌은 학교 도서관 공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깨질 만큼 한쪽 공간에 장서가 있고 나머지 공간에 빈 책걸상 등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어 도서관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을 뿐 아니라 채광상황도 일반적인 교실모듈에서의 전면 창이 아닌 교실 한 칸을 기준으로 끝부분의 2개소에 수직창만이 있어 분위기 또한 매우 어둡게 느껴졌다.

도서관을 둘러싼 외부공간은 건물의 두 날개가 감싸고 있는 포치형태의 중정공간으로, 빛도 충분히 들어오고 있었고 지하공간과의 연계로서 쉼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이 중정공간을 도서관과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학교시설에서의 도서관은 일반적인 독서의 기능만을 충족시킬 뿐이다. 또한, 학교 내에는 학생들이 편안히 휴식

할 수 있는 공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 교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여자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매 수업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 이외의 시간에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실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단순한 독서의 기능만을 했던 기존의 도서관을 학생들이 편안한 휴식도 취하며 창의력을 북돋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계획하여 도서관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자 했다.

경북여자고등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도서관을 학생들에게 독서기능뿐만 아니라, 휴식과 수업, 학교 내 각종 행사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하였기에 그 과정을 안내하고자 한다.

1.2 디자인 프로세스

전체적인 일정은 2010년 1월에 사업공모가 끝난 후, 2-3월에 대상학교 선정과 현장 실사방문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아름다운 도서관 만들기 추진위원회가 학생, 학부모, 학교운영진으로 구성되어 디자인팀과 함께 총 4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7월에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었다.

추진위원회와 함께 한 1차 워크숍에서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한 디자이너의 설명과 함께 학생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공간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학교인 만큼 가구나 색상 등에 관한 이야기도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지금의 어두운 도서관과는 대별되는 밝은 분위기를 선호하였다. 1차 워크숍인 만큼 디자이너는 주로 듣기 작업을 위주로 행하여 실 수용자들의 니드 파악에 중점을 두었으며 학교운영진 및 학부모들도 대부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견개진을 존중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요구사항의 범위는 예산 및 시기, 본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공간적인 문제보다는 도서수장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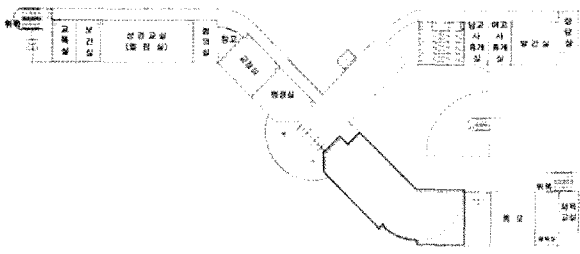


그림 2. 1층 평면도(색칠한 부분이 도서관)



그림 3. 공사전 도서관 내부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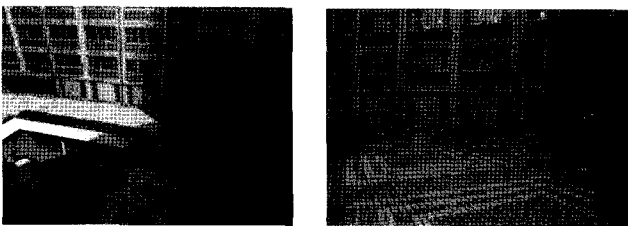


그림 4. 도서관 전면의 증정

표 2. 전체 사업 일정

2010.04.09	1차 워크숍
2010.04.16	2차 워크숍
2010.04.20	3차 워크숍
2010.05.06	4차 워크숍
2010.07	최종 디자인 완료
2010.08	공사업체 선정
2010.09.15	공사 착수
2010.10.22	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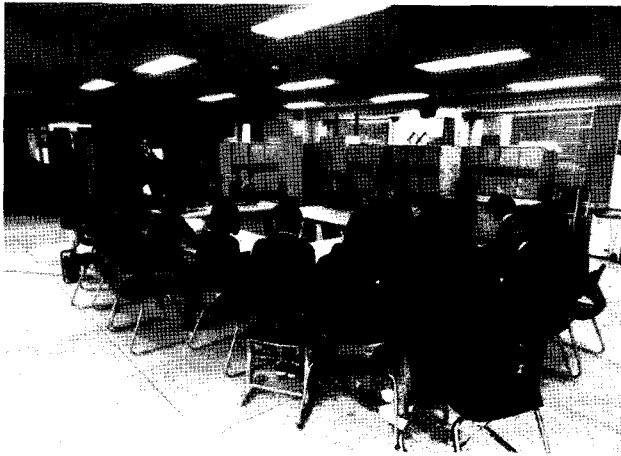


그림 5. 워크숍 전경

구와 색채 등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서관이라는 한정된 기능을 뛰어넘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개념공유 및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일방적인 발주처의 요구나 디자이너의 제안이 아닌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더욱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

1차 워크숍에서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차 워크숍의 요구사항

- 교과 이동 중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소파 형식의 의자
- 간단한 낙서나 놀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칠판
- 공부를 하면서 뭉친 근육을 풀고 피로회복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 곡선 형태의 가구디자인
- 밝고 부드러운 파스텔색의 공간

4월 16일, 도서부 학생들과 도서관 사서선생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된 제2차 워크숍에서는 1차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하고 변경된 참여 학생을 위해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디자인 개념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론과정을 가졌다.

1차 워크숍 이후의 변화로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공간을 재구성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싸이월드에 경북여고클럽을 개설, 클럽에 가입하는 동문 및 재학생들에게도 도서관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디자인에로의 참여과정으로 공간에 대한 애착심을 키울 수 있으며 또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소속감의 향상, 애교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로 되어 이 자체가 하나의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차 워크숍에서는 디자이너의 개략적인 스케치와 이미지 이외에 학생들이 찾아서 가져온 이미지 사진들을 놓고 토론의 과정을 거쳤다.

2차 워크숍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2차 워크숍의 요구사항

- 칠판벽 : 벽면자체를 칠판으로 하여 낙서나 학습이 가능한 공간
- 복층구조 : 홍대의 수다 떠는 도서관처럼 복층으로 되어 아늑하고 재미있는 공간
- 운동기구 : 발레바, 다이어트공, 발지압 자갈.
- 교과학습이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가구배치
-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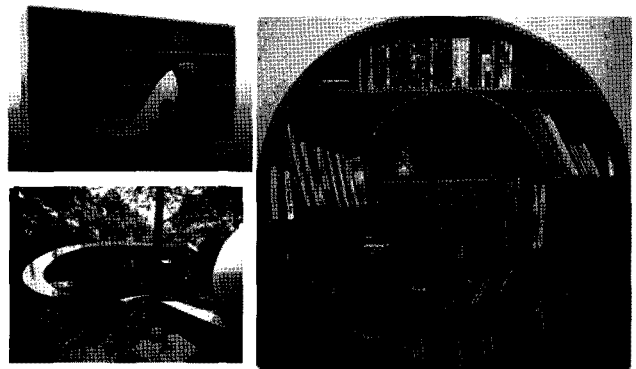


그림 6. 학생들이 제출한 이미지

1차 워크숍의 가구나 색상 등의 디자인도구적인 요구사항에 이어 2차에서는 복층구조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논의가 되었는데 이는 여러 장르를 담고 있는 도서관공간에 대한 이해의 시작에서 출발된 것으로 가구에서 공간으로 확장된 생각으로 비록 교실의 층고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현이 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단차이를 두어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3차 워크숍에서는 1, 2차 워크숍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적인 컨셉이미지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였으며 학생들의 도서관공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고자 학교 내에 원하는 공간이나 시설, 그리고 원하는 공간에 넣고 싶은 장치나 도구에 대한 간단한 스케치를 작성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케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처음에 학생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기하학적인 형태의 책장에서 변화하여 형태가 복잡한 서고에서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며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에서의 활용성 및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서관이 중정에 면해 있으니 중정을 활용한 외부공간과의 연계에 대한 아이디어도 도출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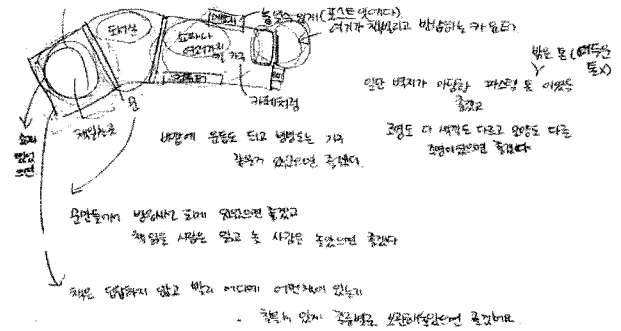


그림 8. 디자인 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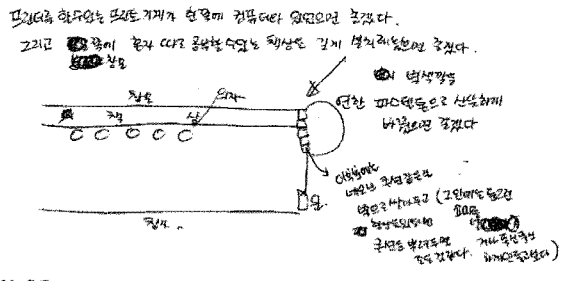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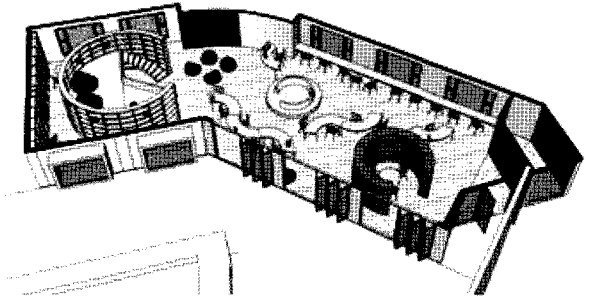


그림 9. 디자인 대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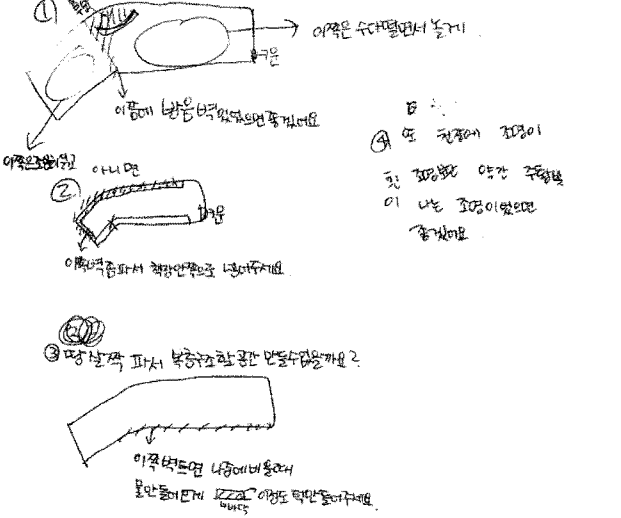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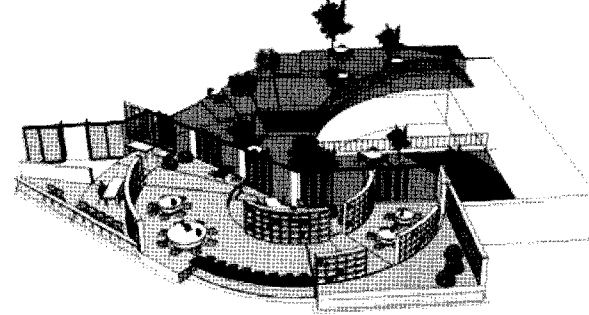


그림 7. 학생들의 아이디어 스케치

또한, 지금까지의 다소 딱딱한 이미지의 도서관보다는 카페형식의 안락한 의자의 배치와 함께 공간적 분할을 통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가나 휴식, 운동공간과의 결합에 대한 생각들도 제시되었다.

3차 워크숍에서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3차 워크숍의 요구사항>

- 일식집 좌식가구처럼 바닥을 판형태의 공간
- 책을 읽는 공간과 휴식 공간의 분리
- 창 앞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가구 배치
- 다양한 도서 진열방식
- 외부 중정 이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외부 파라솔이 나 차양막 설치
- 동서양의 디자인이 조화가 된 공간
-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

1개월 정도 소요된 3차에 걸친 워크숍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디자인 안을 만들어 추진위원회와 마지막 제 4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가지 디자인 안을 제시하였는데 대안 1의 경우에는 내부공간만의 디자인 안을 제시한 것으로 한쪽 커로 알코브 형태의 원형서고를 집중배치하고 나머지 공간은 창으로 면한 긴 오픈데스크를 놓고 자유로운 형태의 좌석을 배치하였다. 중정에 면한 입면처리는 개폐식 유리도어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중정의 입출입을 원활하게 하였다.

대안 2의 경우에는 내부공간의 확장개념으로 외부 중정 디자인도 함께 제시하여 한정된 틀 안에서의 도서공간이 아닌 외부공간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독서scene의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디자인의 특징으로는 내외부 공간에 단 차이를 두어 공간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표 6. 4차 워크숍의 요구사항

- 대안 2를 기본디자인으로 하여 전개하기로 함.
- 바닥 전체를 좌식난방으로 하여 어느 곳에서나 자유로운 휴식이 가능하게 함.
- 바닥에 단차를 두고 다양한 형식의 가구를 배치하여 입식과 좌식 모두 가능하게 하고 가구선택의 폭이 넓도록 함.
- 중정에 면하는 벽을 투명 이동창으로 교체해, 기능을 하고 있지 않던 외부 중정을 도서관의 확장공간으로 넓혀지게 하여 다양한 실내의 문화 활동이 가능하게 함.

4차 워크숍에서의 디자인 요구사항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1.3 공간계획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셉은 도서공간을 한정된 틀 안에서 가두는 것이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화행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내외부 공간의 유기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

중정공간에 면해 기존의 단혀져 있던 벽을 허물고 접이식 유리도어로 바꿈으로써 도서공간에서 야외 중정으로의 막힘이 없는 연속적인 시선의 흐름을 유도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장을 통해 중정과 도서실의 일체화를 의도하였다. 옥외 중정공간으로의 확장은 도서공간과 문화 및 휴게, 여가공간과의 유기적 연계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공간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공간은 진입부에서부터 단차를 두어 공간의 입체적 분할을 통해 용도 및 기능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방적인 공간에서 깊숙한 독립적인 공간으로의 이동을 원이라는 디자인 요소를 이용하여 점진적인 공간의 변화를

계획하였다. 이는 때로는 단체적인 활동으로의 공공적인 이용 및 도서공간이 요구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적인 사용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본 공사에 있어 공간구성 이외에 중요한 요소로서 가구의 디자인 및 배치가 있다. 초기 워크숍 때 제시된 기하학적 형태의 가구들은 직접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은 것과 도서실의 특성상 장서들의 유지관리 및 검색, 반납 등이 용이해야 되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되 실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와 형식을 지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로운 배치가 가능한 책상과 의자를 선택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알코브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원을 이용한 가구를 통하여 공간과의 유기적인 흐름을 고려하였으며 단 차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와 행동을 위한 형태를 제공하는 좌식과 다리를 접지 않고 앉을 수 있어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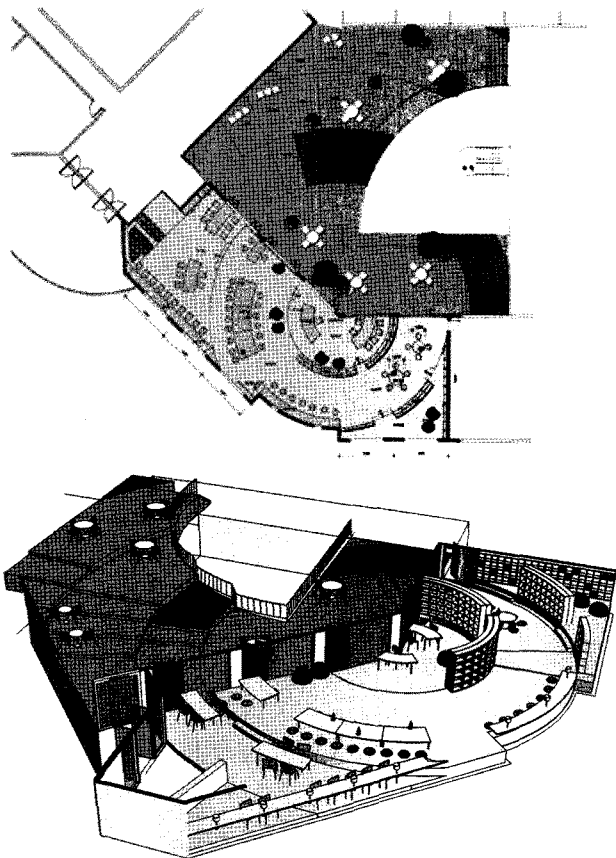


그림 10. 계획평면도 및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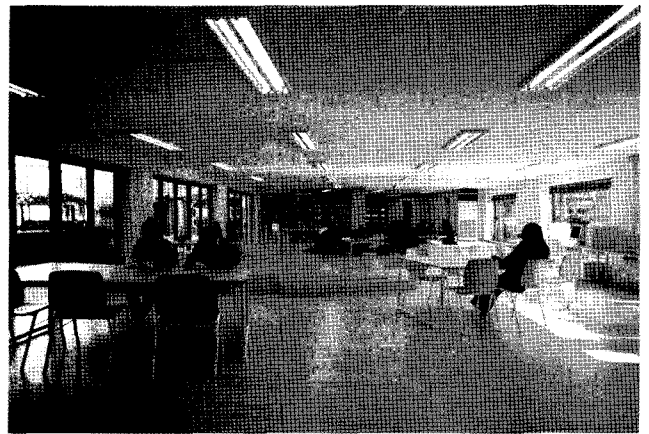


그림 11. 옥외 중정공간과의 연계를 통한 개방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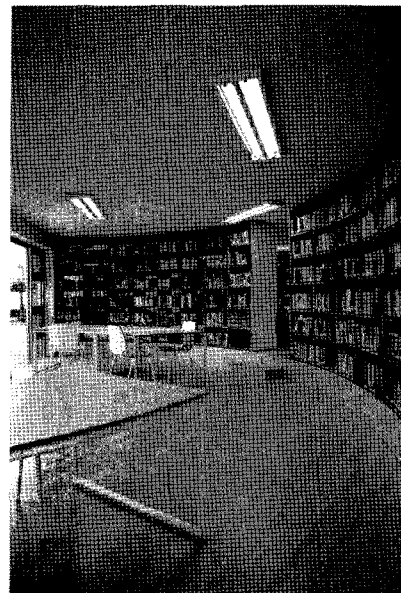


그림 12. 가구배치

용하기 편리한 형태인 입식, 그리고 보기에는 좌식과 같으나 책상바닥을 아래로 판 형태로, 다리를 접지 않고 편히 내릴 수 있어, 좌식의 아늑함과 입식의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형태인 좌식과 입식의 복합형태로 디자인하였다.

가구들의 배치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보거나,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의논하고 학습할 수 있는 대면배치와, 접이식 유리도어 너머로 전개되는 외부 중정을 바라보며 독서 중에 쌓인 눈의 피로를 풀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열린 배치, 그리고 집중해서 학습이 필요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시선에 방해받지 않고 혼자 독서할 수 있는 벽면 배치로 구성되었다.

전체적인 색상은 청소년기의 학생인 만큼 화사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지니며 다양한 영감을 자극하는 내추럴한 밝은 색상으로 계획하였다.

1.4 후기

도서공간은 이제 더이상 감추어진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으로 그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독서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용법 이외에, 친구들과의 교제장소, 혹은 공간 제일 깊숙한 장소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한 낮잠을 장소로 이용하는 등 잠시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닌 도서를 통한 공간과의 소통과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경북여자고등학교의 도서공간 계획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때의 가구와 색상에서 2차 때는 내부공간의 입체적인 요구, 그리고 3차 워크숍에서는 외부공간으로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과정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었으며, 디자이너는 관련 공간이미지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실사용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토론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도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 즐거운 작업이었다. 또한 실제로 매일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은 많으나 한창 수줍음이 많아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에 서툰 사춘기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그림 13. 학생들의 활용모습

이끌어 내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필요함을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2. 서울 대청중학교

2.1 서론

‘참되고 슬기롭고 튼튼하게’라는 교훈을 가지고 1986년 설립인가를 받아 1987년 정식 개교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 대청중학교는 교원평가 시범학교 및 사교육 없애기 시범학교로 지정된 공립학교이다. 전체 학생 수는 1,196명의 남녀공학으로, 학급 수는 33학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학교는 4층 규모의 치장벽돌재 마감의 건물로 전통적인 학교건축의 ㄷ자형을 취하고 있으며 건립 당시에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인지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실외기가 건물 외부의 곳곳에 노출이 되어 산만할 뿐 아니라 실내공간도 세월의 경과를 그대로 반영되어 노후화되어 있었다.

기존의 대청중학교의 도서실은 ㄷ자 건물의 동측 날개 동 4층 복도 끝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며 23년의 시간 동안 축적된 도서와 가구, 캐비닛 등의 물품들이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시설의 도서공간의 기능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림 14. 학교전체 전경

표 7. 학교개요 및 공사개요

설립연도	1987년
학생수	1,196명
학급수	33학급
공사내용	1층 다목적공간의 북카페 만들기
공사면적	186㎡
공사기간	2010.04-20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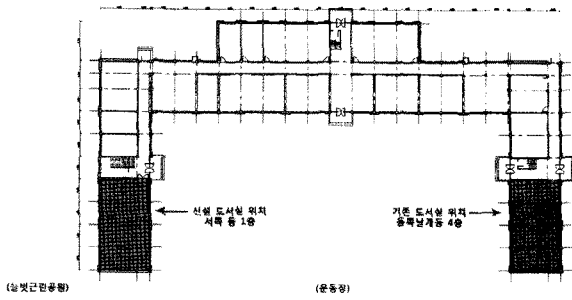


그림 15. 1층 평면도(왼쪽 색칠한 부분이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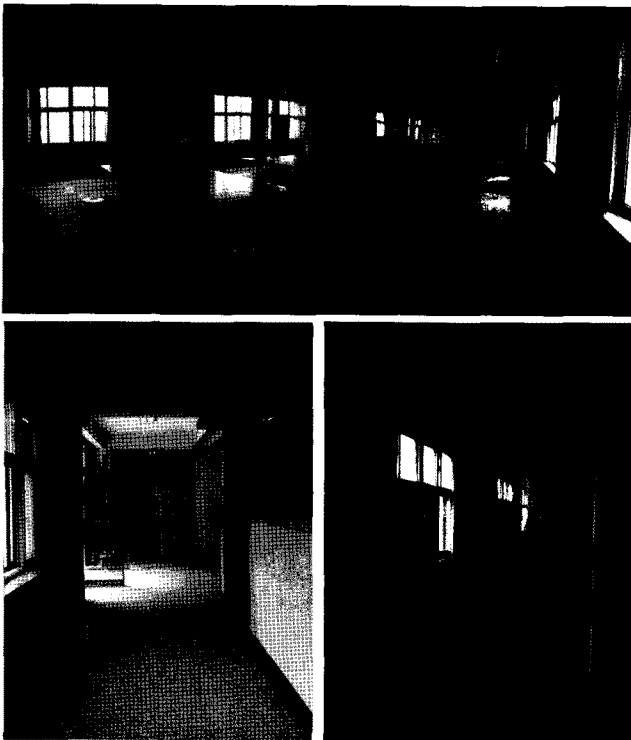


그림 16. 공사전 모습(기존 다목적실)

학교건축에 있어서 도서실은 특수교실에 속하여 이 당시의 거의 모든 학교건축계획이 그러하듯 한쪽 켄의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어 동선의 불합리성은 물론 실사용에 있어서도 도서실의 형식만을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하겠다.

전체적으로 학교도서실이라고 하는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전체적으로 적체된 느낌으로 활기차고 밝은 분위기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교육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학생들의 자율적 방과 후의 공부공간의 필요성에 의하여 학교 측에서 2010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서실뿐 아니라, 컴퓨터실, 기술가정실, 음악실, 보건실, 이동수업교실 등의 다양한 특수교실들의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계획을 세우며, 또 문화관광부의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사업에 선정이 되어 서측 날개동의 1층에 위치한 기존의 다목적실로 도서관을 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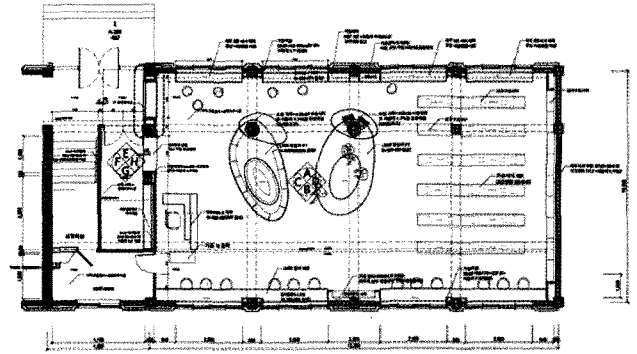


그림 17.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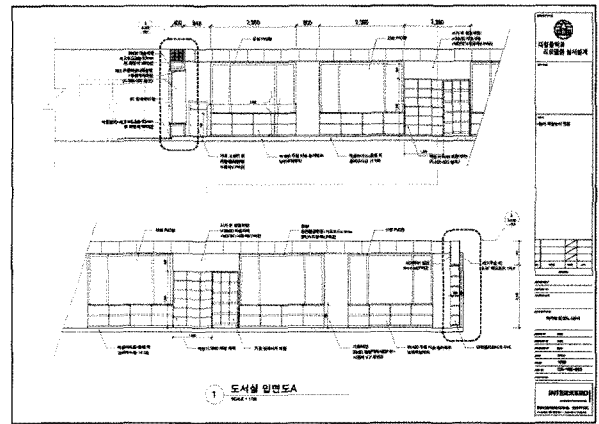


그림 18. 동측 입면도(운동장 측 낮은 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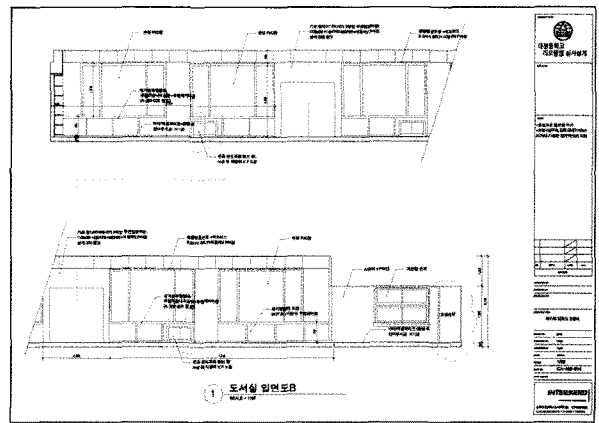


그림 19. 서측 입면도(공원 측 열람책상)

게 만들어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기존의 다목적실의 입지여건은 좋은 편으로 학교정문과 가까워서 학생들의 등하교시 이용이 용이하고 늘벗 근린공원과도 가깝게 인접해 있어 공부하다 휴식할 수 있는 여건조성도 될 수 있는 곳이다.

다목적실은 일반교실 2칸을 사용하고 있었고 주요 용도로는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의 운동공간 및 학교가구들 및 비품들의 저장고로 활용되고 있었다. 실내는 냉

난방기구의 설비덕트의 노출과 바닥은 포장이 안 되어 있어 운동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위생상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좁은 복도에는 냉난방기구가 가로막고 있고 전체적인 층고도 낮아 답답한 형태이지만 창 밖 외부의 환경은 서측으로는 근린공원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동측 창으로는 정성 들여 가꾸어 놓은 학교의 정원과 운동장이 펼쳐져 있어 도서공간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복도공간을 없애고 복도공간까지 도서공간으로 만들어 출입구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며 1층에 면해 있는 조건으로 인해 설치된 기존의 방범창살을 제거하고 넓은 창호를 교체하여 자연광과 외부의 쾌적한 환경을 도서관내부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게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명칭도 다소 딱딱한 도서실에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찾아오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책을 즐길 수 있도록 '북카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2.2 디자인 프로세스

전체적인 일정은 2010년 1월에 사업공모가 끝난 후, 2월에 대상학교 선정과 현장 실사방문이 있었다. 학교 측에서는 도서관추진위원회가 교장을 비롯한 학교교사 위주의 운영진으로 구성되어 디자인팀과 함께 총 5회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월에 최종 디자인이 확정되어 7월 하순에 공사에 착수, 1개월여 만인 9월 초에 완공이 되었다.

제1, 2차 워크숍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서교사로부터 새로 생길 북카페에 대한 자유로운 생각과 도서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구시설 및 사항을

표 8. 전체 사업 일정

2010.03	사서교사와 1, 2차 워크숍
2010.05.11	3차 워크숍(도서관추진위원회) -설문조사 및 디자인 아이디어 전개
2010.05.19	4차 워크숍(도서관추진위원회)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2010.06.14	5차 워크숍(도서관추진위원회) -디자인 시안 도출 및 예산 조정
2010.06	최종 디자인 완료
2010.07	공사업체 선정
2010.07.23	공사 착수
2010.09.05	공사 완료

듣고, 이를 초기설계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학생들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적 분위기의 제안과 함께 도서 대출과 안내기능을 하는 안내데스크의 신설, 신간도서 정리와 북카페의 운영을 돕는 학부모 및 학생도우미를 위한 장소, 그리고 방과 후 공부방 학생들을 위한 사물함의 설치를 요구하였고 상황에 따라 도서공간을 이동식수업을 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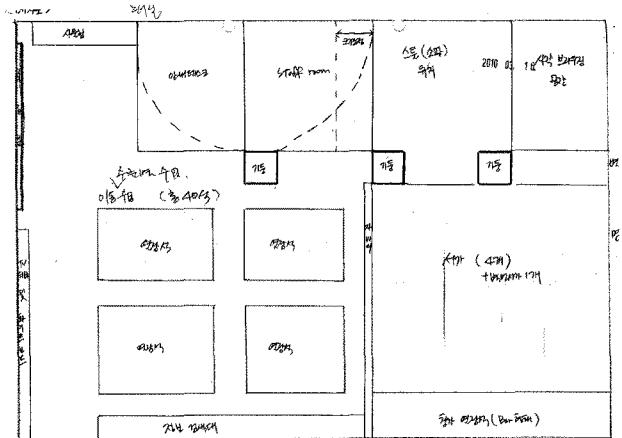


그림 20. 사서교사의 운영프로그램 및 초기 제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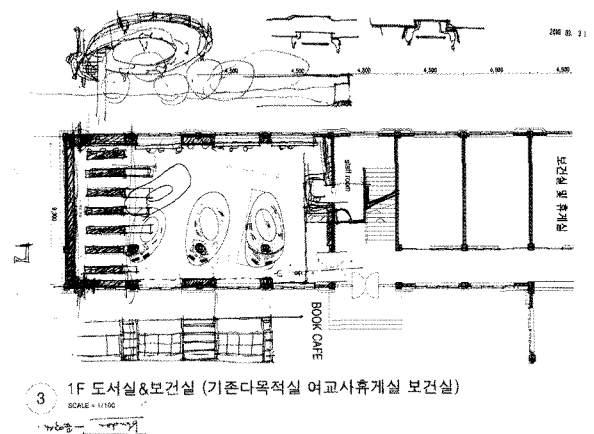


그림 21. 중간협의 과정의 아이디어 스케치

표 9. 3차 워크숍의 요구사항

요구사항	제안사항
- 현재 소장 도서수 도서 13,361권-향후 18,000 수용가능 하도록 설계	- 창가 하단부를 책장으로 계획하여 열람과 도서수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
- 온돌난방과 실내화를 벗고 생활하는 좌식 공간 제안	- 온돌난방과 더불어 이동수업과 도서열람을 할 수 있는 가구를 제작하여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계획
	- 창고로 쓰이던 계단하부의 공간을 신발을 갈아 신는 출입구 공간으로 전환하여 북카페 운영과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초기 디자인 안을 가지고 개최된 3~5차 워크숍에서는 도서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하며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중 북카페 내에서 학생들이 보다 오랜 시간 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서 공간 바닥에 온돌난방이 제안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협소한 공간에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신발을 갈아 신는 공간과 신발장 등이 필요하게 되어 결과론적으로 실내공간을 더욱 협소하게 만드는 요소로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출입구 대신 출입구 바로 옆에 있는 계단하부 공간을 이용하여 기존의 체육교구를 보관하던 창고를 헐어내고(체육관 신설로 기존 계단하부의 체육교구 보관장소는 필요 없게 되었다) 이곳에 새로운 입구와 신발장, 사물함 등을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북카페의 확장된 도입부인 진실을 만드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카페로 진입 시 한번 꺾어 들어오게 되어 운동장과 복도 측에서 들어오는 흠먼지와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또 기존 출입구 자리에 커다란 창을 내어 내 외부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각적 개방감을 주게 할 수 있는 요소로 될 것이다.

그리고 창가하단부에는 신간서적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책을 손쉽게 볼 수 있게 하여 열람과 도서수납을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2.3 공간계획

내부 공간 설계에 들어가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점은 세 개의 기둥이었다. 이 기둥들을 억지로 감추려 하기 보다는 기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기둥을 중심으로 한 2세트의 계란형 평상 겸 테이블을 북카페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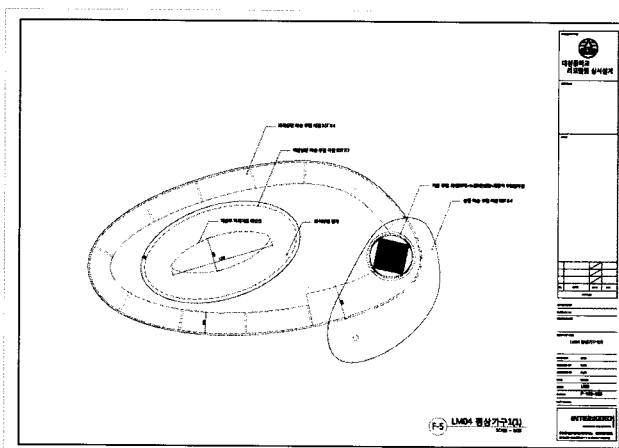


그림 22. 계란형 평상-평상테이블-평면



그림 23. 계란형 평상-원형테이블의 설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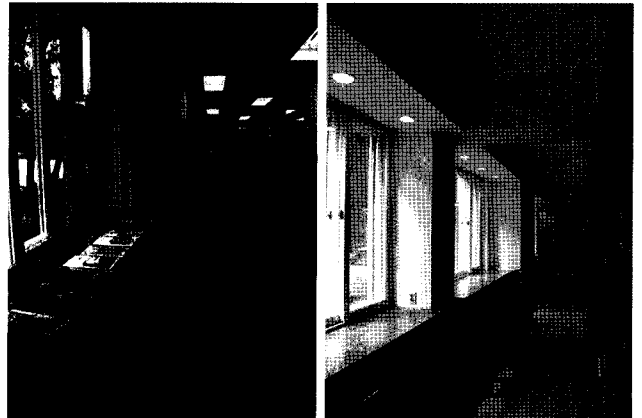


그림 24. 동서측의 책장과 열람책상

면에 걸쳐 계획해 온돌 바닥과 더불어 공간전체를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학생들이 앉는 계란형 평상의 하부공간에는 책을 수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둥구조체와 기둥마감의 사이공간을 통해 전원과 랜선을 연결하여 정보검색대를 설치해 기둥을 중심으로 다양한 높낮이의 활동과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중앙에는 이와 같이 기둥을 중심으로 달걀형 평상-테이블을 배치하고, 운동장 및 중정과 공원을 각각 향하는 두 벽의 경관적 특징과 창턱을 적극 활용하여, 중정 쪽 창가에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책들을 꽂아 놓아 손쉽게 꺼내 볼 수 있는 낮은 책장을 계획하고 공원 쪽으로는 나무를 바라보며 공부를 할 수 있는 창가 선반 겸 책상을 두어 책 수납과 열람석의 기능을 가진 창가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전체적인 재료는 시트지나 플라스틱과 같은 인공적 재료를 배제하고, 유지관리가 조금 더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모든 가구의 마감을 무절 미술품판으로 하여 학생들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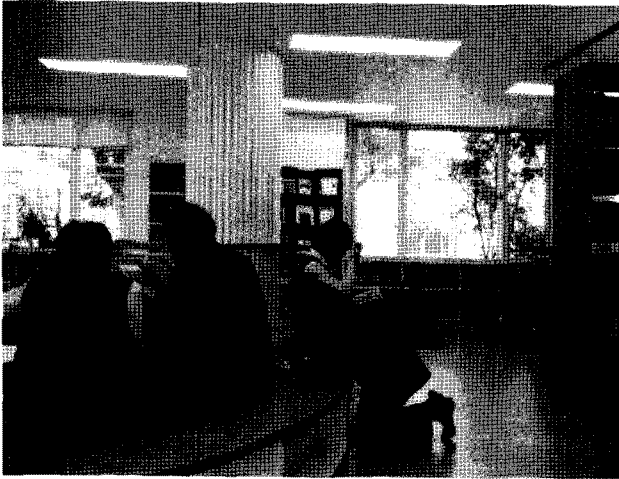


그림 25.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활동의 모습



그림 26. 전체적인 활용 모습



그림 27. 도서공간이용의 다양한 scene

서적 안정감을 도모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무채색계열 색채 계획과 과도한 디자인 요소를 추구하지 않아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추구하였다.

2.4 후기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는 대신에 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

학습을 통하여 사교육비의 절감과 함께 공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작된 본 프로젝트는 기존의 후미진 4층 공간에 있던 도서실을 학생들의 출입이 용이한 1층으로 옮기며 시작이 되었다. 학생회에서도 참여하였지만 아직 공간에 대한 이해와 기능상의 파악 등이 어려운 문제도 있어 초기에는 도서담당 사서교사와의 워크숍을 바탕으로 학부모와 학교운영진 등으로 결성이 된 도서관추진위원회와의 3차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완성이 되었다.

워크숍 기간에 느꼈던 학교 측의 공교육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공간을 내 집같이 만들어 학생들의 자율적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분위기 하에 전반적으로 진지하게 진행이 되었다.

현재 100여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공부하고 있는 대청중학교의 새로운 북카페는 밝고 상쾌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것이다. 디자인 과정에서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아쉬운 면도 있으나 전체적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애교심도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도서공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

도서만 나열되어 있는 저장고의 기능을 떠나 일상적 공간으로서 탈 institution으로서 장시간 체재하며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획편집



박인규(Park, In-Kyoo)
리모델링위원회 위원, 배재대 건축학부 교수
archpark@pcu.ac.kr